절박한 생존의 사각지대

특 집 빈민·학생 연대활동의 현황과 과제

Ⅰ. 빈학연대활동의 현황

지난 7월28일부터 8월2일까지 동대문, 성동, 송파지역의 거리거리에서 서총련 동부지구 소속의 대학생들이 '91하계 빈민·학생 연대활동(이하 하계빈활)을 수행했다.

서울여대, 시립대, 세종대, 한양대, 건국대등에서 도시빈민분과가 중심이된 70여명의 빈활대원들이 동부지역에 존재하는 노점상, 철거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투쟁과 연대를 결의한 동부지역의 하계빈활은 한달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7월25일 한양대에서의 발대식과 8월1일까지의 본활동, 그리고 8월2일 세종대에서 3백여 빈민·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난 빈민학생 연대 한마당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많은 학생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리기조차 할 빈민·학생연대활동(이하 빈활)은 학생들이 끊임없이 강화하고자 하는 민중연대 실현의 한 영역으로 개척되어 해가 갈수록 많은 학우와 빈민지역으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매년 여름 진행되는 농활에 견줄만한 중요한 연대사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글은 80년대 공부방, 놀이방 형태로 출발하여 89년 철거지역에서의 빈활로 정식화된이후 노점상, 일용건설노동자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빈활을 소개하고, 빈민활동이 갖는 의의와 목표, 그리고 빈활에 기초한 학우들의 빈·학연대사업이 좀 더 많은 학우대중의 참여속에 일상적 연대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취지아래 학우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쓰여졌다.

Ⅱ. 빈활은 무엇인가?

빈민활동을 쉽게 이해하기위해서는 농활을 생각하면 된다. 즉 빈민활동은 사상의식적, 조직적으로 앞선 청년·학생이 노동하는 민중으로써 가장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삶과 투쟁의 주인으로 일어서는 도시빈민과 굳게 연대하는 것으로 빈활은 빈·학연대 가장 위력적이고 유력한 방법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빈민활동을 통해 학우들은 단속과 철거등 일상적 생존의 위협에 맞닥뜨린채 불안정한 생활을 강요당하는 도시빈민의 실상을 체험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빈민이 발생하고, 유지·온존되는 사회·경제·정치적 모순과 억압구조를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구체적 체험과 인식은 청년학생들이 나라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향한 투쟁의 선두에서 견결한 대오를 주리는 실질적 힘이 되는 것이다.

또한 빈민활동은 절박한 생존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엄청난 투쟁력과 조직력을 보이며 주인된 삶과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자 일러서는 빈민들에게 청년학생들의 진보적 사상과 투쟁의지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과 같은 상호이해와 상호침투는 도시빈민과 청년학생이라는 생활적, 존재적, 계급적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억압구조와 정치권력을 청산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민중연대의 실현과정인 것이다. 또 빈활에 기초한 빈학연대의 구축은 그 공동의 수행과정을 통해 서로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높이는 과정이다.

Ⅲ. 빈민활동의 개요

빈민활동의 역사는 참으로 짧다. 이는 철거와 단속을 계기로 뭉치고 투쟁하기 시작한 빈민운동의 역사가 짧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폭발적이고 전투적인 빈민들의 투쟁과 빈민운동의 성장은 많은 학우들을 빈·학연대로 나서게 했고, 이것이 일상적 연대를 모색하는 속에서 빈민활동으로 정착된 것이다. 88년을 깃점으로 하여 서총련 각 지구별로 돈암동, 홍은동, 사당2동, 서초동 꽃마을등 철거지역에서의 빈민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빈민지역에 대한 공부방, 놀이방등의 활동이 봉사적·시혜적 차원의 활동으로 인해 여러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또 빈학연대를 실현하고자 했던 주체들을 좌절하게 했던 것을 연대활동으로 끌어올리고, 교양과 정치의식화 사업까지 담보하고자 하는 노력속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철거지역에서만 진행된 빈민활동이 전체 빈민대중과의 연대라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은 90년들어 새로운 유형의 빈활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90년 하계빈활에서 동대문, 송파, 성동, 도봉산등 노점상과의 빈활및 건설일용노동자와의 "건활"로 구체화되었다. 이제 빈민활동은 관심있는 몇몇 선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빈민지역 몇곳을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학우대중이 겨울과 여름의 방학이라는 조건을 활용하여 집단적·대중적·대규모적이며 일상적으로 빈민들을 만나는 하루빈활로 정착되고 있다. 91년 하계 빈민·학생연대활동만 하더라도 이미 6월말부터 서총련과 전국빈민연합 소속 철거민, 노점상및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이 공동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 선전활동과 주체형성작업, 교양사업과 사전답사를 수행했다.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 서울의 경우 종로, 도봉산, 영등포, 동대문, 송파, 성동의 노점상지역과 신대방동, 토정동, 신청동, 청량리1동등의 철거지역, 그리고 수도권 일대의 건설 현장에서 짧게는 4박5일, 길게는 13박14일동안 400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빈활과 건활이 진행되었다. 나아가 빈민활동은 지방으로까지 확대되어 91년 하계빈활이 원주와 광주에서까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 학생들에 의해 모든것이 준비되고, 실행되던 빈활이 이제는 주체와 주체의 연대로 정착되고 있음과 방학을 이용한 계기적 활동에서 나아가 일상적으로 만날수 있는 하루빈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빈활은 점점 확대 발전해 나아가는 추세에 있으며 도시빈민과의 다양한 접촉은 민중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름 농활에 견줄만한 연대 사업으로 성장

분반활동 공부방 대동한마당등 접촉넓혀야

이렇게 확대되어온 빈활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실제 노점을 함께 하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에 참가함으로써 노동의 고귀함과 빈민들의 실제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기초로 다양한 분반활동, 공부방·놀이방의 확대, 공동의 선전전, 빈학연대 대동한마당, 문화활동등 다양한 접촉면의 확대로 나아가고 있다.

Ⅳ. 성과적 빈활을 위해 요구되는 몇가지 제안

이제 빈민활동은 몇몇 학생들만의 활동이 아니다. 또 빈민활동은 학생들만에 의해 일방적으로 준비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빈민활동이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정으로 의미있는 빈민·학생 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빈민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이제 빈민활동은 개별적으로 힘겹게 참여하고, 개별적으로 만족하는 비대중적, 비조직적 활동이 아니라 서총련과 전빈련의 조직적 연대속에서 준비되고, 학생회라는 학생대중 조직의 골간사업으로 자리잡아 학생회가 책임지고, 학생회로 남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둘째, 빈민활동은 이제 더이상 "하면 좋고, 안해도 좋은 사업"이어서는 안된다. 각 단위 학교별로 빈민활동을 기초로 빈학연대 사업을 책임지고 나갈 주체를 분명하게 꾸리고, 빈민활동이 학생회 일정을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학중의 중요한 연대사업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세째, 더이상 빈민활동이 공부방을 하거나,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만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각 학교별로 공부방주체 빈민에게 관심있는 모든 학생들을 끌어안을수 있는 "도시빈민분과"를 건설하고 이를 연대사업의 한 영역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것이 지구단위로 구축되고, 서총련, 전대협 단위로 총화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빈민활동에 참여했던 학우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스스로 주인으로 일어서 주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이다. 빈활의 주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선전물 몇장 돌리며 모여지는 것도 아니다. 먼저 느끼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주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섯째, 학내에서 빈민들의 생활상과 투쟁과 모습을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선전하는 일도 필요한 일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빈민들과 빈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Ⅴ. 글을 맺으며

빈학연대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나마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 이글을 읽는 많은 학우들이 더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빈민지역에서, 빈민들의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처음에는 관심있어하던 학우들이 곧잘 "빈민운동의 전망" "빈민투쟁이 변혁운동에서 갖는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지나쳐버린다. 그러나 단언컨데 이러한 고민은 책상앞에서, 머리속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투쟁하는 빈민대중을 만나자. 공동의 실천속에서 빈민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투쟁하는 빈민과 함께 빈활은 바로 그것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고리이다!

김 지 민
〈전국빈민연합 정책선전국장〉

긴급투고—고황 편집위원 연행에 부쳐

대학언론탄압 투쟁으로 분쇄할 터

본교 교지 〈고황〉편집위원 4명이 지난달 8월28일 새벽 청량리 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31일 전원 석방되었다.

이들은 정원식씨 폭행사건으로 수배중인 외대 학생을 찾는다는 이유로 연행되었으나 전혀 엉뚱하게도 발간된지 무려 4개월여가 지난 교지의 내용을 문제삼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었다.

당시 구속영장의 표면적인 이유는 91년도 고황 봄호인 제37호 특집Ⅰ'국가와 변혁이론'의 3개 논문, 시대글 '학생운동 어떻게 할것인가'와 기획Ⅰ'조선공산당에서 남민전까지'의 2개 논문등이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여부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번 불법연행사건을 단순한 글 내용에 대한 탄압의 차원이 아님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불법연행사건은 크게 두가지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구속영장없이 진행된 이번 사건은 광역선거 이후 상승되고 있는 민중민주세력에 대한 전면적인—이전의 검거열풍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각대학 간부및 지도층등 모든 민중세력에 대한 대량 구속 및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강화 노동자에 대한 대량구속—탄압을 그 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구속과 연구기관에 대한 사상·언론·출판물 탄압은 이제 대학언론에까지 그 손길을 뻗히고 있다.

둘째, 경찰의 논리 즉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협의'이다. 그들의 논리는 대한민국의 적을 이롭게 하는 표현물을 제작·배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독재자 이승만의 자유당시절 친일파를 반공투사로 만들고 항일투사를 '빨갱이'로 몰아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반공법에 그 뿌리를 두고 박정희, 전두환등 독재자들에 의해·이름만 달리했을 뿐 이땅의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악법중의 악법이 아닌가.

이에 서울, 수원 각 캠퍼스별로 고황편집위원회와 본교 언론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 및 연행학우 학과를 중심으로 결성된 이번 연행학우 구출및 대학언론탄압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상황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함께 학우들에 대한 선전활동을 계속해 나갈것이다. 또한 사건의 왜곡을 일삼는 제도권 언론매체와는 달리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진보성을 생명으로 그동안 민중민주운동에 복무해 온 대학언론의 선전·선동역량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분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우리의 학우와 민주인사의 조속한 석방,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은 중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벌레먹은 이땅의 민주주의가 되살아나는 길이며, 그길을 위해 우리 선전일꾼들은 결코 자주언론의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고황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일동〉

朔風 역사속에서 배워야 할 민족정신

우리들 인간은 과연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혹자는 자랑스런 조상들의 빛나는 전통을 배운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오욕으로 점철된 치욕적인 이야기를 배운다고 한다. 이렇게 개개인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수많은 대답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명쾌한 대답중의 하나를 들자면 '역사는 굽이쳐 흐를지언정 멈추지는 않는다'일 것이다. 이 말은 곧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간파하는 자만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흐름'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흔히들 역사의 심판은 사필귀정이라고 이야기 한다.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고, 뿌린대로 거둔다고. 과연 그러한가. 알렉산더 대왕의 3제국에 걸친 통일을, 나폴레옹의 유럽지배, 진시황의 통일을 선과 악의 잣대로써 가늠할 수가 있는가. 20C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에서 행한 만행들에 대해서 그들은 충분한 댓가를 치루었는가. 역사창조의 주체를 인간으로 볼때 그 인간이 일궈낸 것들 모두는 사필귀정도 정의의 승리도 아니다. 다만 이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일뿐 오히려 '악'의 승리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를일.

그렇다. 역사는 그것이 선의 흐름이든 악의 흐름이든 그 흐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흐름속에서 우리는 귀감이 될 수 있는 '교훈'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성을 역사의 흐름속에서 올바르게 간파하는 자만이 역사의 청산작업에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불의에 대한 단죄가 뒤따라야만이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듯이 과거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그 후대의 역사가 제대로 될수 있는 것. 화합이란 미명으로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함께 뭉뚱그려온 우리로서는 오늘 역사의 청산작업에 대한 불철저함으로 인한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가 8월29일, 경술국치의 날이었다. 불과 81년전의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새술을 새부대에 담을 호기를 스스로 놓쳐버린 우리에게 역사는 응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 처럼 일재의 잔재가 생활곳곳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 어느 계층이랄것도 없이 입으로는 반일을 외치지만 몸과 정신은 일본에 또다시 점령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수도 서울한복판에는 조선 총독부의 건물이 이름만 달리한 채 보란듯이 버티고 있고 이에 대한 철거반대의 요구가 '그 돈으로 서민 아파트 짓자'는 사뭇 그럴듯한 변명부터 시작해서 '치욕의 역사를 후손에게 보여주자'는 역사적 사명감(?)의 혼돈에까지, 어처구니가 없는 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비잔틴 양식의 건물을 놓고 건축물 감상하는 것도 치욕의 역사를 후세에 보여주는 것도 결코 아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식이고 민족정신 바로 이것인 것이다. 정신이 죽은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春秋〉

SAMSUNG Electron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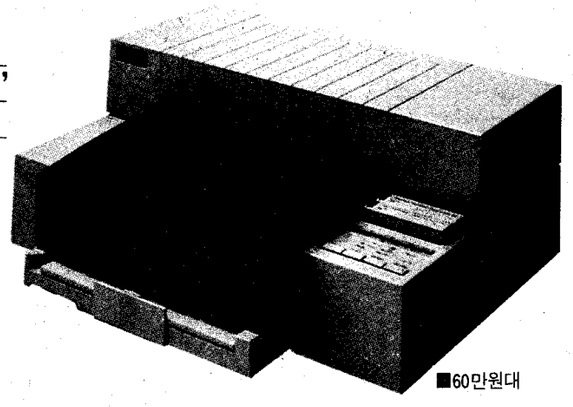
컴퓨터는 삼성이 좋습니다

HEWLETT PACKARD

왜 너도나도 HP데스크젯 프린터를 찾는가?

'도트급 가격으로 레이저급 성능을 발휘하는 프린터' HP데스크젯

프린터의 혁명을 가져온 HP데스크젯—
발명되자마자 선풍적인 화제를 일으킨 HP데스크젯이 드디어 잉크젯 프린터의 새시대를 열었습니다.
HP데스크젯은 종래 사용하던 구세대 도트매트릭스의 가격대인 60만원대이지만 미려한 한글, 한자체는 물론, 그래픽까지 300DPI의 고해상도로 완벽하게 지원되는 차세대 레이저급 프린터입니다.



■60만원대

저소음을 실현했습니다.

쾌적한 실내분위기를 보장하는 소음레벨은 50dB — HP데스크젯은 보다 낮은 43dB로 조용하고 빠른 인쇄를 실현했습니다.

HP와 삼성이 함께 보장하는 3년간의 아프터서비스 —

88년, 89년 2년 연속 FORTUNE지가 선정한 No. 1의 컴퓨터 회사인 휴렛팩커드 — 휴렛팩커드는 한국 컴퓨터산업을 이끌어가는 삼성컴퓨터와 함께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HP데스크젯의 아프터서비스를 3년간 보증합니다.

* 삼성컴퓨터 전기종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휴먼테크
삼성컴퓨터
삼성전자

컴퓨터상담실 ■컴퓨터부문 PC사업본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0번지 대윤빌딩 3층 559-2402~4, 559-2412~6 ■강남고객센터 : 559-2620~2 ■강북고객센터 : 927-5142~6 ■강서고객센터 : 392-2545
■지방영업소 및 교육장 ● 부산(051)818-4451~2 ● 대구(053)629-1741~2 ● 광주(062)526-9470~1 ● 대전(042)252-5582~4 ● 경남(0551)62-2550~3 ■구입처 : 전국 삼성컴퓨터밸리 및 컴퓨터 전문점